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9. 9.(수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	강병수	☎ 760-7901
		업무담당자	김유근	☎ 760-7923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농업기술원, 양채류 배추순나방 예찰 강화 당부

- 최근 5년 9월 기온·강수량 평년 웃돌면서 배추순나방 번식 우려 -
- 정식 후 30일 이내 집중 예찰...발생 확인 시 신속 방제 -

□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양채류에서 피해가 확인된 배추순나방의 9월 발생에 대비해 양배추·브로콜리 등 재배 농가에 철저한 예찰과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.

○ 서부지역(한림읍, 한경면, 대정읍, 안덕면)의 양채류 재배면적은 2025년 무인기 면적조사 결과 2,722.1ha로 도 전체 3,672.2ha의 74.1%를 차지한다.

□ 배추순나방은 양배추, 브로콜리 등 배추과 작물을 갹아먹는 해충으로, 애벌레가 말린 잎 속이나 생장점 안쪽에 숨어 새순을 파먹는다.

○ 9월은 높은 기온과 잦은 비로 배추순나방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다. 고산지역 기상자료를 분석한 결과, 최근 5년(2021~2025년) 9월 상순과 중순의 평균기온은 평년(1991~2020년)보다 각각 1.8℃, 2.9℃ 높았고 강수량은 각각 64.3mm, 49.1mm 많았다.

※ 9월 상순 평균기온·강수량: 최근 5년 26.1℃, 105.7mm / 평년 24.3℃, 41.4mm

※ 9월 중순 평균기온·강수량: 최근 5년 26.0℃, 96.9mm / 평년 23.1℃, 47.8mm

○ 특히 정식(아주심기) 초기에 생장점이 피해를 입으면 브로콜리는 꽃봉오리가 제대로 생기지 않고 양배추는 속이 차지 않거

나 작은 덩어리 여러 개로 나뉘어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다.

- 농가는 피해가 많이 나타나는 정식 후 30일 안에 새로 자라는 잎과 생장점 주변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.
- 잎말림이나 굽아먹은 자국, 생장점 피해가 확인되면 곧바로 적용 약제로 방제하고, 발생이 많으면 7일 간격으로 두세 차례 방제해야 한다. 약제 저항성이 생기지 않도록 작용기작이 다른 약제를 번갈아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.
- 강병수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은 “정식 초기 배추순나방 피해는 수확기 상품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” 며 “정식 후 30일 안에는 발을 자주 살펴보고 발생이 확인되면 신속히 방제해 고품질 양채류를 안정적으로 생산해 달라” 고 말했다.